

제37장 정서법

1) 띄어쓰기 원칙과 올바른 표기법

품사와 품사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는 자립성이 없으므로 앞 말에 붙여 쓴다. 의존명사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것, 등, 터, 리, 한, 첩, 뿐, 만큼, 대로’등은 의존명사이므로 용언 다음에 띄어 쓴다. 그러나 체언 다음에 ‘뿐, 만큼, 대로’등이 올 경우 이때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예를 들어 ‘당신뿐, 영희만큼, 너대로’로 써야 한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막아 내다, 먹어 버리다, 깨뜨려 버리다, 올 듯하다, 될 성싶다, 할 만하다, 될 법하다, 잘난 체하다, 아는 척하다’등으로 써야 한다. 어근에 접미사 ‘하다, 되다, 당하다, 받다, 시키다, 답다, 삼다, 짓다, 룬다’등이 이어질 때는 붙여 쓴다. 예를 들어 ‘공부하다, 이해되다, 폭행당하다, 사랑받다, 사형시키다, 사람답다, 문제삼다, 결론짓다, 신비롭다’로 써야 한다.

‘있다, 없다’는 굳어진 형태가 아닐 경우 띄어 쓴다. 굳어진 경우는 ‘끝없이, 변함없는, 상관없는, 상관없이, 한없는, 수없는, 재미있는’등으로 붙여 쓰며, 굳어지지 않은 경우는 ‘책임감 있는, 신뢰성 있는, 일리 있는, 가치 있는, 관련 있는’등으로 띄어 써야 한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는 붙여 쓴다. 예를 들어 ‘반민주, 신여성, 반정부, 비합리적, 비논리적’등으로 표현한다.

한자어에서 모음이나 ㅇ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쓴다. 예를 들어 ‘나렬->나열’, ‘전룰->전율’, ‘분렬->분열’, ‘백분룰->백분율’, ‘선룰->선율’로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룰, 성공룰, 발생룰, 보급룰, 지급룰’로 표현해야 한다.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잇점->이점’, ‘땃구->대구’, ‘씻구->시구’, 헛점->허점’으로 표현해야 된다. ‘셋방, 찻간, 텃간, 곳간, 숫자, 횃수’는 예외로 한다. 한자어와 고유어가 합쳐진 경우 시옷소리 덧대어 날 때는 시옷을 적어 준다. 예를 들어 ‘훗날, 갯날, 양칫물, 텃마루’등이다.

영어 ‘he’를 번역하여 ‘그를’, ‘she’를 번역하여 ‘그녀는’으로 쓰는데 ‘그’는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식 대명사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 남자는, 그 여자는’으로 표현해야 한다. 성별을 모를 때는 ‘그 사람은’으로 표현해야 한다. 영어와 우리말이 합쳐져 이상한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머러스하게->유머 있게’, ‘아이러니컬하게->아이러니하게’로 써야 한다. 영어의 형용사에 우리말 접미사 ‘하’가 바로 붙을 수 없다. 용언의 ‘ㄴ’불규칙 활용형인 ‘워’나 ‘와’에 ‘하다, 지다’가 붙을 때는 붙여 쓴다. 예를 들어 ‘고마워하다, 미워하다, 고마워지다, 미워지다’로 써야 한다. 용언의 활용형 ‘해’다음에 ‘하다’와 ‘지다’가 붙는 경우도 붙여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미안해하다, 미안해지다’로 붙여 써야 한다. 아버지의 형을 가리키는 큰아버지일 때는 붙여 써야 한다. ‘큰 아버지’로 쓸 경우 키가 큰 아버지를 말한다. 아버지의 남동생을 가리키는 ‘작은아버지’도 붙여 써야 한다. 딸아들을 나타내는

‘큰아들’도 붙여 써야 한다. ‘박이, 바기, 배기’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판박이, 점박이, 열 살바기, 다섯 살바기, 나이배기’로 써야 한다.

‘띄다, 띠다, 띠우다, 떼다’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띄다’는 칸을 벌리거나 ‘뜨이다’의 준말이다. ‘띠다’는 색깔이나 빛을 띠 때 쓰이며, 띠를 두를 때 쓰인다. ‘띠우다’는 ‘위로 올리다’의 뜻이다. ‘떼다’는 ‘붙였던 것을 분리하다’는 뜻이다. 정확하게 문맥에 맞게 써야 한다.

제목, 표제어, 속담, 격언 등에는 온점을 찍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압록강은 다시 흐른다’로 써야 한다.

‘~(으)려고, ~(으)르려고, ~(으)라고’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데 ‘~(으)려고’가 맞는 표기이다. 예를 들어 ‘먹으려고, 먹을려고, 먹을라고’에서 ‘먹으려고’가 맞는 표기법이다. ‘~(으)려야, ~(으)르려야, ~(으)르래야’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데 ‘~(으)려야’가 맞는 표기이다. 예를 들어 ‘먹으려야, 먹을려야, 먹을래야’ 중에서 ‘먹으려야’가 맞는 표기법이다. ‘떨래야 떨 수 없는’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데 ‘떨려야 떨 수 없는’으로 써야 한다.

특히 자주 띄어쓰기가 틀리는 단어가 많은데, 예를 들어 ‘왜냐 하면, 우리 나라, 여러 가지, 이 같은, 최근 들어, 요즘 들어’ 등은 띄어 써야 한다.

외래어 표기 중 잘못 쓰고 있는 말들이 많은데 ‘메세지’->‘메시지’, ‘리더쉽’->‘리더십’, ‘쥬스’->‘주스’, ‘텔레비전’->‘텔레비전’으로 써야 한다. ‘~(으)로써’와 ‘~(으)므로’를 구분해서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믿음으로써’는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고, ‘믿음으로’는 ‘믿기 때문에’의 뜻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다.

‘서슴치 않는’은 ‘서슴지 않는’으로 표기해야 하며 ‘삼가하다’는 ‘삼가다’로 표기해야 맞다. ‘담그다’와 ‘잠그다’의 활용형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담그니, 담가서, 담갔다’, ‘잠그니, 잠가서, 잠갔다’로 써야 한다.

2) 표준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음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중에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것을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강남콩’->‘강낭콩’, ‘삭월세’->‘사글세’, ‘위력성당’->‘울력성당’ 등으로 써야 한다.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똥’->‘돌’, ‘두째’->‘둘째’(제2, 두 개째), ‘세째’->‘셋째’(제3, 세 개째), ‘네째’->‘넷째’(제4, 네 개째), ‘빌다’->‘빌리다’(빌려 주다, 빌려 오다)로 써야 한다. 다만,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 ‘두째’로 한다. 예를 들어 ‘열두째, 스물두째’로 표기한다.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예를 들어 ‘수꿩, 수나사, 수놈, 수사돈, 수소, 수은행나무’가 표준어이다. 다만,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 소리를 인정한다. ‘수캉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로 쓴다. '숫양, 숫염소, 숫쥐'는 접두사 '숫-'으로 한다.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를 들어 '깡충깡충, 쌍둥이, 바람둥이, 발가숭이, 오뚝이, 주춧돌'이 표준어이다.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조, 사돈, 삼촌'의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ㅣ'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서울내기, 시골내기, 냄비, 동댕이치다' 등의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아지랑이'는 'ㅣ'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를 들어 '미장이, 유기장이, 웅기장이, 대장장이' 등은 기술자이므로 '-장이'가 붙고, '심술쟁이, 소금쟁이, 옥심쟁이, 개구쟁이' 등은 비유나 별명을 나타내므로 '-쟁이'가 붙는다.

'괴팍하다, -구먼, 미루나무, 여느, 으레, 케케묵다, 허우대, 허우적허우적'과 같이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구려, 깍쟁이, 나무라다, 미숫가루, 바라다, 상추, 지루하다, 튀기, 허드레, 호루라기' 등은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예를 들어 '윗눈썹, 윗니, 윗도리, 윗목, 윗몸, 윗입술' 등이 표준어이다.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예를 들어 '위쪽, 위채, 위층, 위턱' 등이 있다.

한자 '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예를 들어 '구절, 결구, 대구, 문구, 시구, 어구, 인용구, 절구' 등이 표준어이다. '귀글'과 '글귀'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예를 들어 '귀찮다, 빠리, 뺨, 뺨장어, 빔, 생쥐, 술개, 온갖' 등을 표준어로 인정한다.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막대기/막대', '망태기/망태', '머무르다/머물다', '서두르다/서둘다', '서투르다/서툴다', '시누이/시누/시누', '오누이/오누/오누', '외우다/외다', '찌꺼기/찌꺼' 등 다 같이 표준어로 삼는다.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귀고리, 꼭두각시, 너 돈, 너 말, 너 발, 너 푼, 녀 냥, 녀 되, 녀 섬, 녀 자' 등을 표준어로 인정한다. '네/예, 쇠고기/소고기, 괴다/고이다, 꺾다/꼬이다, 썩다/쏘이다, 죄다/조이다, 찌다/쪼이다' 등은 왼쪽의 단어를 원칙으로 하고 오른쪽의 단어를 허용한다.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를 들어 '거슴츠레하다/게슴츠레하다, 고까/꼬까, 고린내/코린내, 교기/가기(교만한 태도), 구린내/쿠린내, 꺼림하다/께름하다, 나부랭이/너부렁이' 등은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서는 사어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를 들어 ‘난봉, 낭떠러지, 설거지하다, 애달프다, 오동나무, 자두’ 등을 인정한다.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마른빨래, 성냥, 잔돈, 짐꾼, 푼돈, 흰말, 흰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멍게/우렁챙이, 물방개/선두리, 애순/어린순’에서 왼쪽은 널리 쓰인 방언이고, 오른쪽은 표준어인데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되면서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귀밑머리, 까뭉개다, 막상, 빈대떡, 생인손, 역겹다, 코주부’ 등이 표준어로 인정받았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담배꽁초, 똑딱단추, 떡보, 붉으락푸르락, 셋별, 손목시계, 안절부절못하다, 열심히, 주책없다, 쥐락펴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는허리/잔허리, 가없다/가엷다, 감감무소식/감감소식, 갠/검은엷, 곰곰/곰곰이, 관계없다/상관없다, 넝쿨/덩굴, -뜨리다/-트리다, 모쪼록/아무쪼록, 민둥산/벌거숭이산, 보조개/볼우물, -(으)세요/-(으)셔요, 어이없다/어처구니없다, 여쭙다/여쭙다, 여태/입때, -이에요/-이어요, 좀처럼/좀체, 한턱내다/한턱하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